

# 장흥군, 6년 만의 증가세... 인구정책 효과 보인다

3만4319명... 전월비 8명 증가  
희망주거비 1320만원 등 지원  
농산어촌유학마을 유입도 주목  
10년 만 일곱째야 출산 경사도

장흥군 인구가 6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민선 8기 들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인구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위기가.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장흥군 인구는 3만4319명으로, 전월 3만4311명 보다 8명 늘어나며 6년3개월 만에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노인 인구가 45%를 차지하는 장흥군은 매월 출생아 수는 10명 안팎인 반면, 사망자는 60여명에 달해 지난 2018년부터 인구는 꾸준히 내리막을 걸어왔다. 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학생들이 도

시로 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나며 인구 감소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됐다.

이에 장흥군은 민선 8기 들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특색 시책을 추진해 왔다. 증가 인구가 크지는 않지만, 매년 인구가 줄어들었던 지표 속에서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먼저 장흥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입세대 희망주거비를 5년간 1320만원(2년간 월 30만원, 2~4년차까지 20만원, 5년차 10만원) 지원하고 있다.

또 결혼장려금 800만원, 출산장려금 300만~1200만원을 비롯해 올해부터는 전남도와 함께 1~18세까지 매월 20만원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학교살리기를 통한 인구 유입도 주목할 부분이다. 앞서 장평중학교는 지역살리기의 일환으로 학교를 카페와 같은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학습분위기를

바꾸고, 지역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기울어 가던 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면서 유학생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군은 주거지가 마땅치 않아 농촌 유학을 망설이고 있는 가정을 위해 농산어촌유학마을 10세대를 조성하고 최근 34명이 입주하면서 폐교 위기의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인구 유입까지 모색했다.

군은 한국수자원공사 담유역 지원사업 5억원과 지방소멸기금사업 7억원으로 장평면 우산마을에 담유역 유학마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방소멸에 대응해 인구 유입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벨문학도시 장흥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장흥군에서는 10년 만에 일곱째야 태어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장흥읍에 거주하는 박제정(45)·김해숙(40)씨 부부는 지난 5일 목포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일곱째 여아를 출산했다.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에 태어난 일곱째아는 출산장려금 1200만원(3년),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탄생축하용품 구입비 1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용 비용 284만원, 민간산후조리비 100만원, 출생기본수당 4320만원(18세까지), 기저귀 구입비 216만원(2년), 부모급여 1800만원(2년), 아동수당 960만원(8세까지), 영양플러스 식품지원 108만원(1년), 육아용품 구입비 10만원, 병원비 250만원(6세까지) 등 12개 사업에 걸쳐 총 959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  
11~17일, 보성다향체육관

보성군은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보성다향체육관에서 '제3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보성군체육회와 보성군씨름협회가 주관하며 초등부부터 대학부, 여자부까지 총 933명의 선수가 출전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기량을 겨룬다.

개인전은 경장, 소장, 청장, 용장, 용사, 역사, 장사 등 7개 체급으로 진행되며, 예선전부터 8강까지는 단판제, 준결승과 결승전은 3판 2선승제로 운영된다.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펼쳐진다.

개회식은 오는 14일 오후 1시55분에 열리며, 현역 시절 '모래판의 신사'로 불렸던 이준희 대한씨름협회가 대회사를 맡고,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격려사를 전할 예정이다.

보성=양중수 기자

'열연 스틸밴드 결속 자동화'  
비용 절감·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광양제철소

광양제철소는 2열연공장이 열연 코일 스틸밴드 결속 자동화 장치 개발·상용화에 성공하면서 비용 절감과 작업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고 10일 밝혔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열연공장에서는 열연 코일이 생산되면 두루마리 휴지 모양으로 감겨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스틸밴드(커다란 강철 코일을 묶어 안전하게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강철 재질의 끈)로 묶어 용접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때 잔여 스틸밴드의 길이가 코일의 둘레보다 짧으면 이를 사용할 방법이 없어 폐기한 후 작업자가 2인 1조로 스틸밴드를 수작업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광양제철소는 지난 2023년부터 코일 포장에 전문적인 포스코엔텍 등과 협업, 개발에 착수했다.

약 3년간의 연구 끝에 잔여 스틸밴드의 끝부분을 새로운 스틸밴드와 자동 용접해 주는 장치 개발·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광양제철소는 스틸밴드를 이어 붙이는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밴드 사용량을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여 2열연 공장에서만 연간 3억60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처럼 작업자가 스틸밴드를 수작업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위험 요소가 제거돼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광양제철소는 이번 자동화 장치를 열연공정뿐 아니라 다른 공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고재운 광양제철소장은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기에 이 같은 큰 성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광양제철소의 미래경쟁력 확보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장내 기생충 전수 검사  
진상면 50~70대 주민 전원

광양시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5대강 유역별 위험지역 주민 기생충 질환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장내 기생충 11종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

광양시 장내 기생충 감염률은 자연산 민물고기 생식 등의 이유로 지난 2022년 12.9%, 2023년 12.3%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조사된 장내 기생충 감염률도 5.5%로, 전국 4.5%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시 보건소는 감염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으로 3년에 걸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다압면, 지난해는 진월면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진상면 50~70대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체변을 통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양시보건소(읍) 또는 보건지소(6개 면)로 사전에 연락한 후 검사 기간 내 검체를 제출해야 한다.

박양숙 광양시 보건행정과장은 "무증상이기에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감염병이지만, 방치해 악화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민물고기를 생식한 경험이 있거나 조리하는 종사자들은 이번에 실시하는 기생충 검사를 꼭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안심홈세트 신청하세요"  
여성대상 생활환경 개선·범죄예방

고흥군은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여성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은 여성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비를 제공하며, 여성의 생활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여성이 포함된 한부모가정, 여성 범죄피해자로, 특히 범죄 대응 능력이 취약한 여성 범죄피해자와 한부모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안심홈세트는 스마트홈 카메라, 창문 잠금장치, 택배 송장 지우개, 호신용 스프레이로 구성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농협경제지주 호남농산물물류센터 직원들이 협력사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국산 쌀로 만든 떡과 식혜 200여개를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호남농산물물류센터 제공

## 농협 호남농산물물류센터, 쌀 소비 촉진 아침밥먹기 캠페인

농협경제지주 호남농산물물류센터가 쌀 소비촉진 일환으로 아침밥먹기 캠페인에 나섰다.

10일 호남농산물물류센터(센터장 강현주)는 센터 일원에서 30여명의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쌀 소비촉진과 아침 식습관 정착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호남농산물물류센터 및

협력사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국산 쌀로 만든 떡과 식혜 200여개를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배출 차량에 쌀 소비촉진 현수막을 설치했다.

강현주 센터장은 "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아침밥 먹기 등 쌀 소비촉진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우리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국민 쌀 소비 촉진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강현주 호남농산물물류센터장, 이강노장성근거리통합지원센터장 및 농협물류 등 임직원이 참석해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는데 뜻을 같이했다.

조진용 기자

## 순천시,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75개소 지원 대상 선정  
"지역 공동체 확산 기여"

순천시는 지역 내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주도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마을공동체 선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파수마을 만들기 활동 지원 등 세

분야로 진행되며, 이번 공모사업에는 총 75개 공동체가 최종 선정됐다.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75개의 공동체에 총 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먼저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활동 분야는 38개소가 선정됐으며 개소당 5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역 내 돌봄·나눔 활동을 수행한다.

마을 공동체 활동 분야는 공동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올해는 10개소가 선정됐다. 파수마을 만들기 활동 분야 또한 27개 단체가 선정돼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번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조금 회계 및 정산, 보태(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교육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